

울진·삼척 산불 6일째 이어져…산불영향면적이 워낙 넓어 주불 진화에는 어려움 여전

“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입력 2022.01.18 (21:43) | 수정 2022.01.18 (2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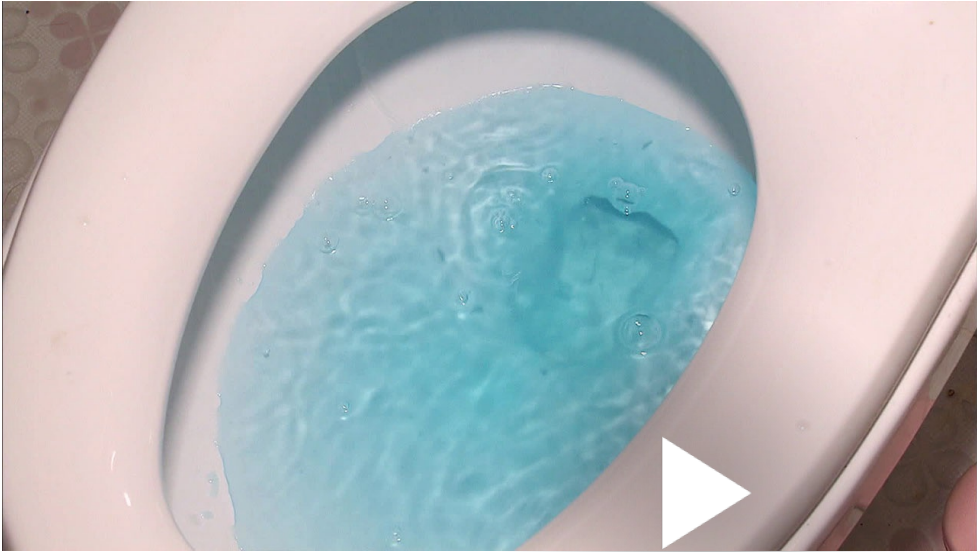
뉴스 9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아프면 쉬면서 치료’ 상병수당 2025년 도입

[앵커]

한번에 6리터 넘는 물이 사용되는 변기가 설치됐다면 불법인거 아셨습니까?

물 절약을 위해 2014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건데,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석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8년 전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변기를 사용할 때, 한 번에 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측정해봤습니다.

1회 사용량은 11리터, 규정인 6리터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수도법은 2014년 이후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변기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제보

재난포털

ON AIR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보다 3.5%p ↑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보다 3.5%p ↑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돌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그러나 한국 YMCA가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리터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7리터에서 많게는 12리터까지, 기준에 맞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한 건도 적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절수형 변기라도) 사용수압이나 공급수압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 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또, 설치 의무가 건축할 때로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건축 승인과물관리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관리·단속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 "신축 건물에 절수용 변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변기를 교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보면 (기존 건물도) 변기를 교체했을 때 비용을 지불해 준다든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95리터, 절수 설비 기준만 잘 지켜도 한 해 4억 7천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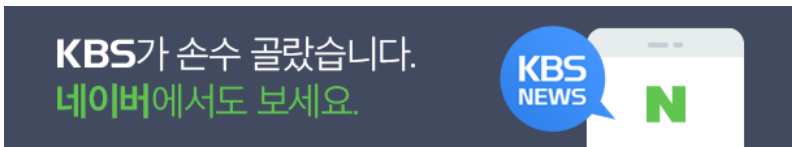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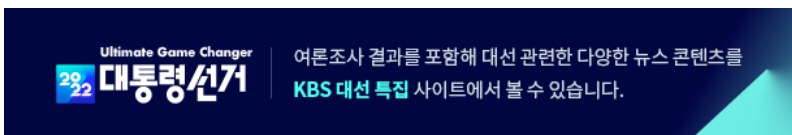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석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오늘의 HOT클릭!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돌불축제’ 어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울진·삼척 산불 연새때...전체 진화율 70%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

KBS 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